

우수학생들의 진로효능감 증진을 위한 가치-기초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이 은 진 조 영 아 한 종 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설득적인 가치-기초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진로효능감과 진로선택 확신도, 진로 정체감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6시간의 프로그램은 집단 활동과 검사실시, 개인상담과 마무리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20명은 사전사후 검사 실시 결과,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 확신도가 증가하였으나 진로정체감과 전공 확신도는 변화가 없었다. 대상별로 학력 우수 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진로상담 개입인 가치-기초 진로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대학내 소위 인기 전공으로 진학하고 관련 직업을 가지도록 지도되어 왔다. 이렇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는 대학진학 이후로 미루어져 왔으며, 고교에서는 대학선정이나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위주의 진로지도가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로상담이

필요 없다는 인식까지 있으며, 우수학생에 대한 진로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져 왔을 뿐이다.

그 결과, 보통 이상의 능력을 지닌 학생들은 개별화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그저 주변에서 권유하는 대로 진로 선택을 하고 있다. 실제로 과별 대학입시에서 계열별로 직업과 연관되는 소수의 특정학과에 우수한 학생들의 지원이 쇠도하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확인된다. 소위 명문

대학들의 시간대를 달리한 복수지원이 허용된 이후, 대학의 입시는 합격자 발표 후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연쇄 이동하는 장면까지 연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진로상담(career counseling)에서는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평가하여 적절한 직업을 찾아주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차별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진로 프로그램들은 대상별로 다른 진로발달상의 과제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뚜렷한 처치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학력이 우수한 대학생들은 독특한 진로 발달욕구를 가지며, 어린 시절부터 지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들이 조화롭게 발달하지 못하거나(Clark, 1979; Roedel, 1984), 여러 가능한 학문적, 진로 목적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발달시키는가와 관련된 문제(Frederickson, 1979)인 다중잠재력(multipotentiality)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다양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것(multipotentiality)은 관심과 능력이 다양하고 많음을 이르는 말이다. 우수한 학생들의 일부는 다행스럽게도 특정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수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 보통 이상의 흥미와 능력을 나타낸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들은 정체감과 목표설정이라는 필수적인 진로 발달과제를 눈 앞에 두게 된다. 대학에서의 전공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공선택은 미래의 직업을 고려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결정인 것이다. 보통이상의 능력을 지닌 학력우수 학생들이 진로를 계획하는 동안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제시되는 수많은 선택가능한 대안들 앞에서 험들어하게 된다(Emmett & Minor, 1993; Kerr, 1991).

능력이나 관심사 위주로 진로상담을 해 오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는 가치에 따른 목적 설정과 의미있는 정체감 확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다. 즉 능력있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흥미나 능력 위주보다는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Colangelo & Zaffrann, 1979; Miller, 1981),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Kerr, 1981).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맞는 전공이나 직업 선택에 대한 진로결정을 위해 다양한 진로에 대한 탐색 행동의 증가가 요구된다.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진로탐색 행동도 진로관련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에 관한 진로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시된 제안들도 이들이 당면하는 진로계획 결정(career-planning decision)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우수한 이들은 학교교육 중에서 진로지도를 가장 좋았던 것으로 평가하며, 비구조화된 상담보다는 구조화된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rr, 1991). 그리고 우수한 이들을 위한 처치에서 또래로부터의 지지와 지도도 불확실성과 걱정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Perrone & Male, 1981).

본 연구에서는 진로관련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활동들로 구성된 집단 프로그램을 학력 우수 학생들의 진로탐색의 특성에 맞게 가치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수정, 보완하여, 개발된 가치 중심의 진로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은 학력이 우수하고 다중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에 대한 진로문제를 구체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진로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진로 발달과정에서의 대상과 문제별 차별화된 처치에 대한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진로에 대한 개입은 개인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거나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고안된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의 처치들을 일컫는다(Fretz, 1981; Spokane & Oliver, 1983). 진로에 대한 강좌나 세미나, 워크샵과 같은 집단활동과 개인상담 면접, 그리고 흥미검사 실시와 컴퓨터를 통한 학습, 소책자를 통한 자가학습까지도 진로 처치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진로에 대한 개입에는 흥미 검사의 해석, 진로의사결정 훈련, 환상 기법, 직업관련 게임들이나 직업정보 제공 등이 포함될 것이다(Holland, Magoon, & Spokane, 1981; Rounds & Tinsley, 1984).

Holland 등(1981)은 이상적인 진로 개입에 중요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안하고 있다. 직업정보에 대한 노출, 개인의 자아상과 진로와 관련된 잠재력을 명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평가자료와 도구, 진로 계획, 문제점들, 포부 등을 인지적으로 재연할 수 있는 활동들, 집단원들이나 상담자로부터 주어지는 지지와 강화, 그리고 직업적인 대안에 대한 정보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인지적인 구조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유형의 개입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Holland(1981) 등은 박사급 진로 상담자가 흥미검사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진로 개입에 있어 개인상담이나 자료제공, 자가학습도구 보다는 집단 단위의 처치들이 효과 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연구결과(Fretz, 1981; Spokane & Oliver, 1983)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Oliver와 Spokane(1988)은 자신들의 초기 주장을 반박하며, 개인상담, 평균 3.67회로 구성된 워크샵이나 구조화된 그룹이 6.9회 정도로 이루어진 집단상담보다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상담 개입의 다양한 특성들과 진로상담의 결과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선별된 58개 연구자료에서 240개의 처치/비교집단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강의 교과로 제공되어질 때, 가장 효과가 컸다. 그러나 이 경우, 개입에 들어가는 소요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개인상담은 시간대비 내담자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은 상담자가 내담자가 왜 상담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진단절차를 통해 진로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를 규명하고 결과 측정을 위해 다양한 표준화된 측정도구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진로발달 지도는 개인상담에 의한 경우보다 집단활동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개 학생들이 일정한 시기에 직업과 관련된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영덕과 정원식(1984)은 진로지도와 상담에서 집단활동이 이용되는 목적과 의미에 대해 1) 자기 이해의 기회가 되어 자신의 직업적 적합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2)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각종 직업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 3) 학생들에게 직업계획의 중요성과 직업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의 기회, 4)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보다 심각한 직업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는 기회, 5)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계획을 검토하게 하는 기회가 되어 학생들이 건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집단활동의 의미를 인정하고 잘 세워진 계획에 의해 적절히 운영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대상에 따라 어떠한 집단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진로개입의 목적 달성여부가 좌우될 것이다.

최근 진로지도와 진로상담분야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강조되어, 개인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한 집단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더우기 진로발달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직업세계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직업적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관 명료화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직업세계의 가치관 명료화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고향자(1992)는 진로결정의 문제를 지닌 대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의사결정 유형과 현재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진로결정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 송재홍과 천성문(1995)은 국내에서 개발된 진로발달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후, 청소년들에게 직업세계에 대한 가치관을 탐색하도록 자극하여 구체적인 직업보다는 포괄적인 진로활동영역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의사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송재홍과 천성문, 1996).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를 특정한 직업에 맞추는 전통적인 진로상담은 학력 우수학생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높고 평평한 직업 흥미 곡선에 대한 상담자의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라는 해석은 진로상담을 요청할 당시 학생들이 느꼈던 혼란을 다시 느끼게 만든다. 우수한 학생들 사이에도 직업주의(careerism)가 만연하여, 경영이나 법학, 공학, 의학만이 안전한 선택이라는 생각들이 퍼져 있다(Katchadourian & Boli, 1985). 또한 미국대학시험의 상위 5%내의 학생들의 절반이상이 196개의 전공 중에서 인문학이라기보다는 직업과 직접 연관있는 5개의 전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rr &

Collangelo, 1988). 우리의 현실에서도 입시 때 계열별로 영문과, 경영학과, 법학과, 의예과, 전자공학과 등의 특정학과로 수능시험의 고득점자들이 몰리는 현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진로지도는 직업의미 탐구보다는 직업에 대한 탐색에 중점을 두어옴으로써 학력이 우수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후 연구자들은 목적의식의 개발과 의미있는 정체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Hollingworth(1926)는 우수한 이들이 자신들의 재능의 의미와 삶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부모와 교사, 상담자들이 12살 때부터라도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권유해야 하며(Webb et al., 1982), Bloom(1985)은 뛰어난 예술가, 과학자, 운동선수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강한 정체감의 확립이 재능을 훌륭하게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Colangelo와 Zaffran(1979)은 재능있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은 흥미나 능력보다는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Kerr(1981)는 이들에 대한 진로상담에서 구체적인 목적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치와 욕구에 기초하여 목적을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정보를 찾고 진로안내를 받게 하는 데 효과가 있었으며(Kerr & Ghrist-Priebe, 1988), 또 이와 유사한 가치중심 프로그램이 재능있는 학생들의 포부를 구체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로개입에 있어 가치명료화에 대한 강조가 수용되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이수용(1986)의 '진로상담을 위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있다. Balistrieri(1980)의 '대학생활의 진로성숙을 위한 집단 가치명료화과정'과 Wayne(1976)의 '자기자신을 위해 결정하기'를 참고하여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키도록 가치를 명료화하는 과정을 훈련시키고자 개발되었다. Kerr와 Erb(1991)는 생애설계 워크샵, 직업흥미와 인성, 가치 등에 대한 평가, 평가 해석과 개인상담이 포함된 집단프로그램을 5-8명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개인면담과 집단상담 회기를 통하여 상담자는 사회적 영향 기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탐색하고 가치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상담자가 영향력을 미치도록 고안되어진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수 학생들은 프로그램 참가 후 실시된 정체감과 목적의식 발달에 대한 평가에서 무처리 집단의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가치기초 진로 워크샵이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문제 제기 및 연구의 가설

본 연구에서는 Kerr와 Erb(1991)의 학력 우수 학생들을 위한 가치기초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단계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학력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비교할 것이다. 각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 향후 프로그램 구성에 참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대한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1. 사후 평가시 가치에 기초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직업정체감이 유의하게 증진될 것이다.
- 가설 2. 사후 평가시 가치에 기초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진될 것이다.
- 가설 3. 사후 평가시 가치에 기초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진로확신도가 유의하게 증진될 것이다.

방 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Y대에 수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각종 경

표 1. 프로그램 일시와 참가자 인적사항

집단	일 시	상 담 자	개인해석	성		계 열				전체
				남	여	인문	사회	이학	공학	
1	1월 23,24일(화,수) 오후 4:30 - 6:30	본 연구자	O	0	3	2			1	3
2	1월 29일(토) 10:00 - 4:00	본 연구자	O	2	3	2	3			5
3	2월 1일(화) 10:00-4:00	다른 상담자 (4년 경력)	O	3	2	1	1	1	2	5
4	2월 1일(화) 11:00 - 5:00	본 연구자	X	3	4	3	1		3	7
계				8	12	8	5	1	6	20

시대회 입상과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되어 입학이 결정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동계 강좌에서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 공지하여 참가희망자를 모집하였다. 40명이 신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명(남 8명, 여 12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3-6명씩 4집단으로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일시와 참가자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진로 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미결정 수준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활동별로 효과 및 만족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진로계획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우려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실시되었다.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와 개선할 점들은 프로그램 실시자(상담자)와 참가자들과의 사후 토론과 설문을 통해 정리하였다.

2. 집단 프로그램 - 가치중심 진로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기존의 진로지도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능력과 관심을 파악하여 직업과 연결짓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성적이 우수하여 다양한 관심사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맞는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많은 기회로 인해 선택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맞는 가치에 기초한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각 회기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회 : 생애설계 워크숍(Life-Planning Workshop), 1시간 30분(5명 기준)
사전검사 실시
- 진로 효능감, 진로 정체감, 진로 미결정 수

준, 인구학적 질문, 참가자와 실험자간의 소개, 프로그램 안내

-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능력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 흥미, 능력, 욕구, 가치에 적합한 직업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들의 가치에 기초한 진로 결정을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임을 강조

활동 1 - 생명선(Life line) 그리기

활동 2 - 역할 벗기(Role-Stripping exercise; 자신들이 가장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4가지 역할을 끊기

- 순서대로 돌아가며 각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며, 한가지 역할씩 버려나가기
- 모든 역할들이 다 버려진 다음에, 촉진자는 진로 선택과 중요한 역할간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활동 3 - Perfect Future Day Fantasy; 눈을 감고 이완하기

- 10년 후 미래의 완벽한 하루 일과 상상하기
- 촉진자는 완벽한 미래의 하루에 관한 준비된 대본을 15분간 읽어주며 이끌기
- 자신들의 상상과 가치간의 관련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 2회 : 자신에 대한 평가, 2시간

- 적성탐색검사(한국 가이드스 발간): 직업유형 가치 목록: 18개의 가치들에 대한 선호도 평가
- 성격유형검사 실시(KPTI 발간): 인성유형

• 3회 : 검사해석을 포함한 개인상담 및 마무리, 1시간 30분

- Social influence technique 적용하여 개인해석(상담자는 전문가적 태도로 자신들을 소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에 기초

해서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 면접의 목적임을 소개, 전문적이고 매력적인 어휘를 구사하며 검사 결과를 해석)

; 해석순서는 적성탐색 검사의 직업코드, 적성탐색검사의 성격요인, 가치목록 점검, 검사 전에 생각했던 진로코드와 검사결과의 코드의 일치여부, 그 코드에 해당하는 직업들을 성격요인에 비추어 고려, 자신의 욕구만족에 비추어 보고 자신의 가치에 그 직업들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 본다(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업이 있다면 예전에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다. 결국 학생들이 자신들의 최고 가치를 이루기 위한 진로목표를 선택하도록 이끌어준다.).

; 상담자의 요약 -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다방면에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능력이나 흥미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 의미(meaning)가 건강한 결정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행동이나 결정을 조율해 나갈 때, 네 자신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미 뛰어나고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소명의식과 목적성, 정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욕구와 흥미, 능력들을 의미 있는 목적 속으로 조직화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며,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될 것이다.

- 개인면담 후, 소집단으로 모여 경험 나누기
 목표 설정 chart를 작성, 사후 검사 실시 (별도 10분)

3. 상담자

상담전문가인 본 연구자가 집단 1과 2,4를 이

끌었으며, 집단3은 상담심리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상담 경력 4년인 상담자가 이끌었다. 개인상담 회기는 두 상담자 외에 상담 석사학위 후 인턴과정에 있는 상담자 2인이 더 참가하였다.

4. 평가도구

진로미결정 수준과 진로확신수준을 측정하는 진로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와 진로정체감 측정을 위해 진로상황척도(My Vocational Situation)에서 진로정체감 하위척도(Vocational Identity),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을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변인: 성별, 나이, 학년, 전공결정 여부, 전공결정학기.

진로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hir(1987)가 만든 것으로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진로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반응식의 19번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여 1-2번 문항은 '진로선택확신수준'으로, 직업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3-18번 문항은 '진로미결정 수준'으로 이름지었으며, 문항 1,2의 점수가 높을수록 확신수준이 높고, 문항3-18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더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는 허자영(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상황 척도(My Vocational Situation) - Vocational Identity :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진로결정상황 척도는 3개의 하위영역, 진로정체감(18문항),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4문항), 진로선택의 방해요인(4문항) 등 2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척도만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진로관련 의사결정에 별 문제를 느끼지 않으며 선택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정체감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자기자신에 대해 불만족하며 진로선택에도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허자영(1996)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예(Y), 아니오(N)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 직업관련 자기효능감이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정의에 근거한 개념으로 특정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계획이나 훈련을 완수하고 그 직업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 모형에 기초한 CDMSES(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Taylor & Betz, 1983)의 50문항 중에서 하위척도별로 5문항으로 구성된 총 25문항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단축형의 하위척도는 자기평가(self-appraisal), 직업정보 수집(gathering occupational information), 목표설정(selecting goals), 계획수립(making plans), 문제해결(solving problems)등이며,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α)는 .73(자기평가)에서 .83(문제해결)으로 보고된 바 있다.

5. 분석방법

사전검사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검사에서 실시한 각 척도의 변인들에 대해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여 처치 전 4개의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음을 검증하였다. 그 후, 각 상담조건 내에서

사전, 사후 검사 시 처치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쌍별 t검증을 하였고 개인 상담 회기가 포함된 집단 1, 2, 3과 개인상담 대신 단체 해석이 포함된 집단4 간의 진로 관련 변인들의 변화에 대한 쌍별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세부 활동 별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결 과

1. 집단간 사전검사 분석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사전 사후 검사결과를 비교하기에 앞서, 상담자와 개인상담 회기 포함 여부가 다른 4집단 간의 사전 검사에서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 점수들간의 ANOVA를 실시하였다. 진로결정 척도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통해, 진로 및 전공확신수준과 진로 미결정 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자기 효능감을 알아본 결과, 4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진로관련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사전-사후검사의 프로그램 효과 검증

진로관련 변인들 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우는 진로확신수준($F(3,16)=-2.13, p<.05$)과 진로자기효능감수준($F(3,16)=-5.40, p<.001$)이었다. 이에 비해 전공확신수준과 진로미결정 수준, 진로정체감은 다소 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변화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집단별 진로관련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는 SD

척도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F
진로결정척도					1.089
진로확신 수준	3.33(1.53)	2.00(.71)	3.00(.71)	2.71(1.38)	.224
전공확신 수준	3.33(1.53)	2.80(.84)	3.20(.45)	3.00(1.15)	.227
진로미결정 수준	40.67(16.92)	34.40(9.91)	35.80(7.53)	36.86(10.22)	
진로정체감	8.00(1.92)	8.20(1.92)	8.40(2.79)	11.57(3.95)	1.275
진로자기효능감	116.6(30.99)	118.0(27.08)	130.40(6.88)	153.57(35.76)	2.063

진로결정척도(CDS):진로확신수준(1-4), 전공확신수준(1-4), 진로미결정 수준(16-64)
 진로정체감(MVS-VI): 진로정체감 수준(0-18)
 진로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_SF): 진로 자기효능감 수준(25-225)

표 3. 집단별 진로관련 변인들의 사전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는 SD

척도	사전 검사	사후 검사	F
진로결정척도			
진로확신 수준	2.70 (1.13)	3.15 (1.09)	-2.13*
전공확신 수준	3.05 (.96)	3.30 (.98)	-1.23
진로미결정 수준	36.55 (9.99)	33.40 (8.35)	1.77
진로정체감	9.40 (3.73)	9.40 (3.50)	.00
진로자기효능감	133.35 (30.47)	156.35 (31.42)	-5.40***

*p<.05, ***p<.001

표 4. 개인해석 집단과 단체해석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 ()는 SD

과정	집단1,2,3 (개인해석, n=12)	집단4 (단체해석, n= 7)	전체	F
인생도 그리기	3.83(.58)	3.29(1.11)	3.63(.83)	1.43
역할벗기	4.00(.95)	3.14(1.07)	3.68(1.06)	1.81
10년후 미래의 하루 상상하기	3.75(.75)	4.00(1.15)	3.84(.90)	-.57
개인검사	4.25(.75)	4.00(.00)	4.16(.60)	.87
개인(단체) 해석	4.50(.67)	3.43(.53)	4.11(.81)	3.56
목표설정 표 작성	4.17(.71)	3.57(.98)	3.95(.85)	1.53

3. 프로그램 활동별 만족도

생애계획 워크샵 내에서 실시된 인생도 그리기, 역할벗기, 10년 후 미래의 하루 상상하기, 개인검사, 검사해석, 목표설정 표 작성 등의 6가지 활동에 대한 도움받은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각 과정에 대한 평가는 위에 제시된 표 4와 같다.

심리검사에 대해 개인해석이 실시된 1, 2, 3 집단과 단체해석이 실시된 집단 4의 도움받은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개인해석을 받은 집단원들의 만족도 4.50 (.67)으로 단체해석을 받은 집단원들(3.4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세부 과정에 대해 보통(3)이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검사(4.16)와 해석(4.11)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진로에 관한 다양한 접근 중에서 가치에 기초한 단기 진로 탐색 워크샵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참가가 진로효능감을 비롯한 진로 관련 변인들의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별 해석이 포함된 상담과정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가치 기초 진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워크샵 실시 결과, 각 과정들에 대해 참가학생들은 보통이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참가 후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확신 수준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미결정 수준이나 전공 확신수준, 진로 정체감은 정적인 변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총 6시간의 진로 워크샵 실시 후,

사후검사를 통해 진로 정체감의 변화를 확인하려는 것은 좀 성급한 기대일 수 있으며, 워크샵 참가 후 증가된 진로 자기 효능감에 의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함으로써 진로 정체감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공에 대한 확신 수준보다 진로 확신 수준이 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 계획에 대해 좀더 높은 확신 수준을 가지고 거시적인 접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반면, 현재 전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신 수준의 변화가 적은 것은 본 워크샵에서 구체적인 전공 정보들을 다루지 않았고 직업과 관련된 가치에 기초한 활동들을 수행한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수학생들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프로그램의 내용 뿐 아니라 형태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가지는 바, 심리검사의 해석을 개별적인 회기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집단 별로 도움받은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개인해석을 받은 참가자들이 단체 해석을 받은 경우보다 검사 해석에 대해 더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가치-기초 진로 워크샵에 개인해석이 포함되어야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여건이 허락한다면 개인해석 시간을 가지는 것이 단기 워크샵에서는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과 지역에 따라 진로지도의 내용과 외형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다. 현재는 진로지도의 대상에 따라 차별화되고 다양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요구들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직업의 종류와 가치가 단순하고 일률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대는 직업의 속성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통합과 세분화가 병행되고 있다. 개인이

가치는 직업에 대한 가치만이 유일하게 직업과 관련되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인의 가치를 파악하고 의식선상에 표면화시키고 이에 근거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진로지도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입시 지향적인 교육 여건에서 체계적인 진로지도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조화하여 다양한 체험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별 시기에 적합한 진로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능력이나 관심사, 상황별로 특성화되는 프로그램들이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예비대학생들에게 실시된 본 워크샵에서도 이러한 기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가치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적절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기대들이 표현되었다.

우수학생을 위한 가치-기초 진로프로그램 효과연구의 한계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학력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진로 워크샵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1-2일 정도의 사전 사후 검사 간격으로 인해 적절한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비교해보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졌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적절한 형태의 가치-기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효과와 비교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진로 지도에 있어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의 효과가 이론적인 차원이 아닌 경험적 차원에서 검증된 자료들이 축적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학력 우수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0여 년에 걸쳐 수정보완을 거쳐 진행되어온 가치-기초 진로 워크샵 프로그램을 우리 대학생들에게 가능한한 원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실시해 보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처해 있는 환경의 유사성은 인정하더라도 학력 우수학생들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노력과 학교의 지원은 우리의 현실과 비교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특정학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교육에서 학생들의 심리, 인성 발달에 대해 비교우위를 지키고 있는 학과 위주의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는 것도 심리학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 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재홍과 천성문(1995). 청소년 진로발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서강대학교 인간의 이해, 제16집, 43-69.
- 송재홍과 천성문(1996).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의사결정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서강대학교, 인간의 이해, 제17집, 43-108.
- 이수용(1986). 진로상담을 위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 계명대학교 지도상담, 제11집, 95-123.
- 이영덕과 정원식(1984). 생활지도의 원리와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Balistreri, T.J., A(1980). *Comparison of a group values*

- clarification procedure and group information counseling procedure on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 Barnette, E.L.(1989). A program to meet the emotional and social needs of gifted and talented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 525-528.
- Bloom, B.S.(Ed.).(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Ballantine.
- Clark, B. (1979). *Growing up gifted.*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 Colangelo, N., & Zaffrann, R.(1979). *New voices in counseling the gifted.* Dubuque, IA: Kendall-Hunt.
- Crites, J. O.(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 CTB/McGraw Hill.
- Emmett, J. D., & Minor, C. W.(1993). Career decision-making factors in gifted young adul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350-366.
- Frederickson, R. H.(1979). Career Development and the gifted. In N. Colangelo and R. Zaffrann (Eds.), *New voices in counseling the gifted*(264-276). Dubuque, IA: Kendall-Hunt.
- Fretz, B. R.(1981).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career interven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77-90.
- Holland, J.L., Daiger, D.C., & Power, P.(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91-1200.
- Holland, J. L., Magoon, T.M., & Spokane, A.R. (1981). Counseling Psychology: Career interventions, research, and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279-305.
- Hollingworth, L. S.(1976).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in highly intelligent children. In W. Dennis & M. W. Dennis(Eds.), *The intellectually gifted: An Overview* (pp89-98). New York: Grune & Stratton.
- Katchadourian, H.A., & Boli, J.(1985). *Careerism and intellectualism among college students.* San Francisco: Jossey-Bass.
- Kerr, B.A.(1981). *Career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Columbus, OH: Ohio State University,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 Kerr, B.A.(1991). *A Handbook for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Alexandria, VA: American Association for Counseling and Development.
- Kerr, B.A., & Colangelo, N.(1988). College plans of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 42-49.
- Kerr, B., & Erb, C. (1991), Career counseling with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 Effects of a value-based interven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3), 309-314.
- Kerr, B.A., & Ghrist-Priebe, S.L.(1988). Intervention for multipotentiality: Effects of a career counseling laboratory for gifte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366-370.
- Miller, J.V.(1981). Overview of career education for gifted and talente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217-226.
- Oliver, L.W., & Spokane, A.R.(1988). Career-intervention outcome: What contribute to client gai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47-462.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L., Yanico,

- B., & Koschier, M.(1987).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errone,P.A., & Male, R.A.(1981). *The developmental education and guidance of talented learners*, Rockville, MD:Aspen.
- Roedell, W.C.(1984). Vulnerabilities of highly gifted children. *Roeper Review*, 6(3), 1-5.
- Rounds, J.B.,& Tinsley, H.E.(1984). Diagnosis and treatment of vocational problems.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pp.137-177). New york: Wiley.
- Rysiew, K. J., Shore, B. M., & Leeb, R. T.(1999). Multipotentiality, giftedness, and career choice: A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423-430.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Webb, J., Meckstroth, E., & Tolan, S. (1982). *Guiding the gifted child*. Columbus: Ohio Psychological Publishing.
- Winston, S.C., Sexton, T.L., & Lasoff, D.L. (1998). Career-intervention outc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Oliver and Spokane(1988),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2), 150-165.

Increasing Career Self-Efficacy for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Effects of a Value-Based Career Intervention

Eun-Jin Lee Young-Ah Cho Jong-Chul Ha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impact of a persuasive value-based career counseling intervention on increas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certainty, and vocational identity in academically talented college students. The intervention of 6 hours involved a standardized set of assessment, individual counseling procedures and group counseling techniques. 20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intervention in the study, a simple pretest-posttest evaluation, showed significant gains on increas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certainty, but no significant gains on vocational identity and major certainty. The discussion focuses on implications for distinctive career interventions on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